

새작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려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저의 고향은 반농반어 촌이예요. 서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가끔 논다랑이를 지나 갯벌에 갔지요. 가다보면 방전숲이 보였지요. 그곳에서 노을 지는 모습을 보다가 돌아오는 길엔 벼들목을 거쳐 왔지요. 아마도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그런 자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논다랑이: 알뜰하게 저며 갖은 양념을 하여 구운 쇠고기. (송씨는 새로 구워 온 논다랑이 집시를 상 위에 올려 놓으며, 신호의 눈치를 살폈다.) <최일남, 거북한 응답>

다랑이: 1산꼭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으로 된 좁고 긴 논베미. 논다랑이라고도 해요. (작은 다랑이는 그나마 쟁기를 덜 수가 없어 따베로 이겨야 했다.) 2수랑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논다랑이를 세는 단위. (가파른 비탈을 쪼아 만들었기에 꼭 명에처럼 휘어든 논베미들이 열 다랑이도 더 넘는다.) <김춘복, 참짓갈>

방전숲: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숲.

벼들목: 벼드나무를 심은 틈. 벼들방천

된 바람: 빠르고 세차게 부는 바람, '북풍'의 다른 말. 인용목(사인·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문규 작 '관촌 수필'

<관촌 수필>은 연작 소설로 모두 여덟 편으로 되어 있어요. '일락서산', '화부십일', '행운유수', '녹수정산', '공산도월', '관산추정', '여유주서', '월곡후야' 등이지요. 제목을 '수필'이라고 한 것 처럼, 하나의 회고담 형식을 취하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는 에피소드들을 나열한 가운데 소설적 구조를 꾀하고 있어요. 여기 소개하는 '일락서산'은 산업화로 폐쇄해진 농촌현실에 대한 비판과 한국 전쟁으로 인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오랜 타향 생활 끝에 고향에 틀러 옛 터전을 둘러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감상을 위주로 하고 있는 <관촌 수필> 가운데 첫 번째 발표된 것이지요.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는 고향을 찾아가 전형적인 조선인이었던 할아버지, 과격한 죄의 사상으로 회생된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그늘에서 외로운 소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는 오랜 타향살이로 인하여 고향을 영영 잃어버린 '나'의 3대를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는 자전적, 독백적, 사실주의적 작품이네요. 시간적 배경은 1940년 농촌 마을로 '관촌'이라는 마을이 공간적 배경인 연작 소설, 단편 소설, 자전적 소설, 순수 소설이네요.

'나'는 성묘를 위해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

오나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선 '나'의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 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나무가 서 있던 거리엔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글썽만이 서 있다. 또한 내가 살았던 옛 집의 모습은 나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여, '나'는 실랑민이 되어버리고 만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나'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팔순 고령으로, 복고주의적인 향수를 버리지 못해 나에게 한자를 가르치기도 했다. 나는 친구가 없어 고적한 소년시절을 보냈다. 결국 '나'는 아는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마을을 돌지 않

일인칭 독백체 훈훈하게 전개 걸쭉한 입담 넉넉한 해학 재미

로 한다.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가훈을 깨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몇 척의 어선을 가진 선주였던 아버지는 광복을 전후하여 사농공상의 서열을 땅국의 풍조로 지적,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게 되어 집안은 축발이 되고 만다. 이런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가졌다. '나'는 읍내로 나가는 길에 잠시 발을 멈추고 옛 집을 다시 본다. 그리고 칠성바위 앞을 바라보는데 할아버지의 환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넋만은 칠성바위 언저리에 묶어 있을 것만 같다. 다시 옛집을 보았을 때 서산마루에는

해가지고 있었다. 주인공은 '왕 소나무'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연상하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 뿐만 아니라 산업화 속에서 급속히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상실감을 느끼지요. '나'의 과거의 한복판에 자리한 어른은 '할아버지'이지요. 할아버지는 명문 가문으로서의 명예심이 남달랐고,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았으며, 의기와 선비로서의 긍지가 대단했던 분으로 나타나요. 그런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보수적 정신, 선민의식을 교훈으로 받았으며, 그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실랑민이란 말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아픔과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의 비극이 개입되어 있었지요.

이 자전적 소설에서 명문 후예로서의 긍지와 권위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아픔이 찾아 왔기도 해요.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와 일인칭 독백체의 문체는 작품 전체를 훈훈한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작품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빚어진 농촌의 황폐화, 인간 소외와 갈등 등을 작가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농촌 공동체의 따뜻한 인간애와 결부시키면서 현실적 관점에서 조음, 비판하고 있었지요.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농촌문제를 근거리에서 조망하여 비교적 사실적인 방식으로 걸쭉한 입담과 넉넉한 해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 소설 읽기가 지루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사라진 해 가족에서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게 하는 소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아름다운 말들도 많이 배울 수 있답니다.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아빠와 사이좋게 지냈으면!

아빠와 사이좋게 지내긴 참 힘든 것 같아요. 전 고민인데요. 아빠는 항상 바쁘세요. 언젠가부터 대화를 할 적이 없어요. 아빠랑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D:공금미)

편지 써보는 것은 어떻가요?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빠들은 40~50대가 되면 한창 일에 바쁘시고, 일에 지쳐있기 마련입니다. 가족을 위해 늘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의 무게라고 할까요? 공금미님이 어릴 때는 딸의 재물을 보는 재미에 많이 놀러 다니고 아빠가 구경이 되어 재미있게 놀아주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딸이 숙녀가 되어 가면 조금씩 소심스러워진답니다. 딸이라고 해서 마냥 아이처럼 대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아빠가 숙녀가 된 딸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요? 그러다보면 아빠도 어떻게 딸을 끌어안아야 할지, 어떻게 대화할지 낯설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참 사춘기 소녀에게 아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는 걸 꼭 알아야 해요. 자랄수록 딸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지고 더 애뜻해집니다.^^ 그리고 아마 공금미님보다 아빠가 공금미님과 더 얘기하고 싶고 놀고 싶고 싶어 하실 걸요? 일단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어렵다면, 공금미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을 써서 아빠 양복 주머니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편지 끝에 "답장은 제발 첫 번째 책상 서랍에 넣어주세요~"라는 센스 있는 말을 덧붙여서 아빠가 편지 답장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빠도 훨씬 마음을 열고 얘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한 번 주고받고 나면 아빠와 공금미님이나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해봐요. 이제는 아빠의 보호관 받는 딸이 아니라 아빠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아빠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공금미님으로 인해 아빠가 행복하시려면 모두다 행복해지겠죠? (바다성담연구소)

스피노자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만화. 스피노자(1632-1677)는 네덜란드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선배 세대인 데카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목적론과 정신은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목적이 생각의 바탕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유대인 사회와 집안에서 자랐고, 유대인 신앙이었던 아버지의 유대인-상속권을 무너뜨려-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유대인 사회와 집안에서 자랐고, 유대인 신앙이었던 아버지의 유대인-상속권을 무너뜨려-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유대인 사회와 집안에서 자랐고, 유대인 신앙이었던 아버지의 유대인-상속권을 무너뜨려-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광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 단 등, 중 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영구위패.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주십시오.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